**자기소개서**

마승현

느끼기에 정말 오랜만에 자기소개서를 쓰는것 같네요.

제가 하고싶은 말이 잘 전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형식적인 내용 먼저**

관록의 기업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양식과 내용이, 젊은 스타트업에서는 통하지 않듯이 '정답은 없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 자기소개서에는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학력, 가족 사항 등을 배제한 입사 지원서를 많이 받는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마침 플러스엑스 에서 '자유 양식'을 말해주어서 제 방식대로 내용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만

필요한 필수 형식을 먼저 기입해 드립니다.

|  |  |
| --- | --- |
| 이름 | 마승현 |
| 생년월일 | 1993.11.07 |
| 연락처 | 010-4945-1051 |
| 이메일 | swirlflag@gmail.com |
| 학력 | 18.02 계원예술대학교 졸업 |
| 전공 |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
| 병역 | 14.04 ~ 16.01 전역 |
| 경력 | 18.01 ~ 현재 픽스다인 재직 |
| 취미 | 게임, 요리 |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는 지난 18년 2월에 계원예술대학교 디지털 미디어디자인과를 졸업했습니다. 전공 특성상 학교 내에서 프로그래밍 관련 커리큘럼이 많았는데요, 일반 디자이너보다 기술을 이해하는 디자이너의 작업이 월등한 품질의 결과물을 낸다고 생각하게 되어 관련 기술을 공부했고, 현재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획과 디자인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도 멋진 디자이너가 먼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목표는 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해졌을 때 다시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디자인의 피드백을 주고, 멋진 레퍼런스를 찾고, 가려내는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의 업무와 기술이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는 걸 느꼈는데요, 올해 여름 이후 찬찬히 이직을 준비하려던 찰나 평소 관심 있던 플러스엑스의 채용 안내에 맞춰 지원서를 보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no risk, row return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첨부해드릴 이전 졸업 포트폴리오에도 적어둔 내용인데요, 한번 손에 쥔 것은 낟알 하나 놓치지 않고, 다만 조금씩 성장한다는 생각이었죠. 남들보다 느릴지언정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에게 이 생각에 변화를 주게 한 문장이 있습니다.   
  
**'리스크를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현재도 헛되게 바라고 기도해 모험하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내가 믿고, 근거 있는 도전은 하지 않는 것이 더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곤 하네요.

**기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최근에 동종업계의 친구와 이런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결과물이 [돌아가게만] 하면 되는것인가?' 돌아간다는것은 원하는 대로 동작한다는 의미겠지요.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보기에 '뭐, 맞아 이거였어' 라고 하는것들 말이죠.   
  
친구의 의견은 '그렇다'였습니다. 성능이나 유지 보수를 위한 설계를 포기하고서라도 돌아만 가면 조건 충족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 의견은 '아니다'였습니다. 일정을 미뤄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일정 품질 이상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고집스럽게 기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적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품질에는 둘 다 욕심이 있었죠. 결국 주제는 협업이라는 틀 안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개발자가 발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에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용해준다면 즐겁게 파고들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아쉬운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플러스엑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려하는지 궁금합니다. 면접에서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믿습니다.   
같은 내용도 사전적 해석으로 적힌 문체와, 서사가 있는 문체는 읽은 사람이 받아들일 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후자가 훨씬 잘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 가장한 편지를 적은 것 같네요. 해야 할 말이 아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과 지원자가 상호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시도가 어려운 이상, 이 방식이 제가 추구하려는 risk처럼 느껴집니다. 의미 있는 return이 돌아올까요?   
  
자기소개서 내용을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o plusx